

태국 국회의장 겸 하원의장은 김종필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을 접견했다.



2019년 9월 20일에 10시 (현지 시간) 태국 국회의사당 접견실에서 추언 릭파이 (Chuan Leekpai) 태국 국회의장 겸 하원의장은 김종필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을 접견했다. 김 부회장은 2019년 9월 19 - 21일에 태국 방문하여 이 기회로 태국 국회를 방문해 태국 국회의장 겸 하원의장과의 대중 매체의 협력 교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하기도 했다. 이 자리에서 추언 의장과 김 부회장은 현재의 뉴미디어(소셜 미디어)를 통한 뉴스 유통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. 이에 태국 국회의장은 “기술의 진보는 인간의 잠재력을 반영할 수 있긴 하지만 전달자의 질은 중요하기도 한다. 전달자들은 시청자들이 그 뉴스로 오해없도록 뉴스를 감시하고 여과하여야 한다. 이어서 기자들이 언론인의식 및 책임감을 가져야 할뿐만 아니라 공동이익을 생각하여야 한다.”라고 말했다.

그외에 태국 국회의장과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은 고령화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. 이는 국회의장은 다가오는 2021년에 태국에서 노인인구가 20%로 증가할 전망이다기 때문에 정부가 이 문제를 강력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. 뿐만 아니라 국회의장은 자신이 태국의 총리 재직 때 노인돕기기금을 설치해서 고령화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.

김종필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은 태국이 아세안 (동남아국가연합) 의장국을 맡고 있는데 아세안의 전망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. 이어서 국회의장은 태국이 올해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태국의 정치적 좋은 발전하기로 간주했다고 생각했다. 또는 국회의장은 이 기회에서 한국인의 독심과 능력에 대해 칭찬하기도 했다. 국민의 인내심으로 현재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되었다.

마지막으로, 태국 국회의장 겸 하원의장은 한국이 계속해서 부강하고 번영하기를 기원했다고 축복했다.

태국 하원사무처 외국어 지원사무국 일본어 한국어과

니싸폰 쏏티만/ 번역